

■ **광주 동구**

광주의 '정치 1번지'라고 불렸던 동구가 인구 하한선 기준에 걸려 단일 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면서 선거구 획정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인근 남구 일부와 합쳐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합신당을 추진하다가 국민의당과 통합해 합류한 박주선(66) 의원의 4선 도전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맞서 더민주에선 이병훈(59) 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출마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호남발 신당 창당을 해오며 세력 확산을 해오다 최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

에 합류했다. 박 의원은 동구 선거구에서 재선을 한 만큼 탄탄한 조직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이사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박주선 의원에 패했지만, '와신상담'하며 바닥 민심을 훑어왔다.

특히 이 이사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지내면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꾸준히 펼쳐오며 민심을 얻는데 주력해왔다.

현재까지는 박 의원과 이 전 단장만이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 '새인물' 카드를 빼들지 여부도 주목

‘국회의원-동구청장 리닝메이트’ 관심



박주선 국회의원, 이병훈 이사장, 강용주 센터장

된다.

특히 이번 총선과 함께 동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지면서 '국회의원-청장' 후보간 리닝메이트 조합도 최대 관심사다.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도 국민의당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 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당 잔류를 선언한 박해자(59) 의원의 재선 도전에 맞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낸 송갑석(49) (사)광주학교장이 출마를 선언,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에서는 송갑석(53)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이근태(51) 변호사, 그리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정용화(52) 후보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 의원은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특



박해자 국회의원, 심판구 시장위원장, 김중배 전 국회의원, 송갑석 광주학교장, 송기석 전 부장판사, 이근태 변호사, 김재두 전 행정관, 정용화 이사장

별법 개정을 '독심' 있게 밀어 붙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교장은 (사)광주학교법 부장판사와 이근태(51) 변호사, 그리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정용화(52) 후보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 의원은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특

박해자 재선 도전에 국민의당 새인물 주목

선거에서 '새인물'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영암 출신인 이근태 변호사도 영입 케이스다. 여기에 김재두(50) 전 국민의당 부 청와대 행정관도 출마표를 던졌다.

이밖에 김중배(61) 전 의원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에선 심판구(75) 광주시장위원장의 출마가 점쳐진다.

선거에서 '새인물'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영암 출신인 이근태 변호사도 영입 케이스다. 여기에 김재두(50) 전 국민의당 부 청와대 행정관도 출마표를 던졌다. 이밖에 김중배(61) 전 의원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에선 심판구(75) 광주시장위원장의 출마가 점쳐진다.

■ **광주 서구 을**

지난해 4·29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당선되며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빼이폰 패배를 안긴 선거구다.

가칭 국민회의를 창당해 국민의당과 통합한 천정배(62)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 을에서는 아직 더민주 예비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천 의원은 최근 "시민과 당의 요청이 있으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면서도 "주민들이 전략공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구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에 합류한 김하중(56)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출마선언을 한 상황인 만큼 천 의원이 그대로 선거에 나설 경우 천 의원과 당내 경선전이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더민주 는 후보난에 직면하고 있다.

조영택(64) 지역위원장

장이 천정배 의원의 리턴메치를 숙고하면서 지역민과의 접촉을 넓히고 있다.

조 위원장은 설 명절 연휴 직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더민주가 전략공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천정배 출마 선언에 더민주 대항마 고심



천정배 국회의원, 정승 전 식약처장, 조영택 전 국회의원, 김하중 전남대 교수, 강은미 전 시의원

새누리당에선 4·29 재보선에 출마해 선전을 펼쳤던 정승(57)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도전을 준비 중이다.

정당당에선 광주시장위원장을 지낸 강은미(45) 전 시의원도 예비후보로 등록해 지역민심을 얻어가고 있다.

■ **광주 남구**

남구는 국민의당 예비후보들이 득세하고 있다. 장병완(63) 의원이 더민주를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했으며, 김명진(52)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정진욱(51) 광주 정치경제 아카데미 원장, 안철수 의원 보좌관을 지낸 서정성(44) 광주 남구의사회회장이 국민의당 소속으로 뛰고 있다. 여기에 가칭 '국민회의'가 국민의당과 통합되면서 김명진(52) 국회의원



장병완 국회의원, 한경노 당협위원장, 김명진 전 행정관, 서정성 전 시의원, 오기형 변호사, 정진욱 정책지원관, 강은태 전 광주시장, 강도석 전 시의원

의 광주시장 공동위원장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당 경선이 어느 지역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민주 후보군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더민주 뉴파티위원회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강은태(67) 전 광주시장이 북당하면 국민의당 후보들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다. 더민주에서는 전

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당 경선이 어느 지역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민주 후보군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더민주 뉴파티위원회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강은태(67) 전 광주시장이 북당하면 국민의당 후보들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다. 더민주에서는 전

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당 경선이 어느 지역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민주 후보군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더민주 뉴파티위원회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강은태(67) 전 광주시장이 북당하면 국민의당 후보들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다. 더민주에서는 전

국민의당 후보만 5명 ... 강은태 출마 변수

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당 경선이 어느 지역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민주 후보군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더민주 뉴파티위원회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강은태(67) 전 광주시장이 북당하면 국민의당 후보들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다. 더민주에서는 전

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당 경선이 어느 지역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민주 후보군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더민주 뉴파티위원회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강은태(67) 전 광주시장이 북당하면 국민의당 후보들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다. 더민주에서는 전

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당 경선이 어느 지역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민주 후보군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더민주 뉴파티위원회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강은태(67) 전 광주시장이 북당하면 국민의당 후보들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다. 더민주에서는 전

■ **광주 북구 갑**

북구갑과 을 선거구 가운데 을 지역 인구가 29만4355명으로, 인구상한선 기준을 초과해 분구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북구 전체 인구가 44만8779명이어서 경계 조정으로 현재 선거구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선거구 경계 조정이 변수다. 광주에서 유일한 더민주 주류 측으로 분류된 강기정(51) 의원이 버티는 북구갑도 국민의당 예비후보들이 다수다. 김유정(49) 전 국회의원과 종편 토크프로그램 패널로 얼굴을 널리 알린 김경진(50) 변호사, 진선기(51) 전 광주시의회 의원, 박대우(48) 지역발전정책연구원장이 국민의당에서 뛰는

천정배 의원의 신당인 가칭 국민회의

당에 참여했던 홍인화 전 광주시의회 의원도 국민의당과의 합당으로 최근 출마 선언을 하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강 의원은 3선으로 다진 탄탄한 조직이 강점이다. 하지만, 더민주 중진위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과 새로운 인재 수혈

로 인한 당내 분위기가 강 의원의 4선 도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선거구에서만 3번째 도전에 나서는 김 변호사는 종합편성채널에 얼굴을 알리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강기정-김경진 리턴메치 ... 김유정 도전장



강기정 국회의원, 김경진 변호사, 김유정 전 국회의원, 박대우 연구원장, 진선기 전 시의원, 홍인화 전 시의원

로 인한 당내 분위기가 강 의원의 4선 도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선거구에서만 3번째 도전에 나서는 김 변호사는 종합편성채널에 얼굴을 알리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 **광주 북구 을**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 구도 체제가 짜여졌다. 더민주를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임내현(63) 의원의 재선 도전에 맞서 최경환(56)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이 경선 도전장을 냈다.

더민주에선 이형석(53)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이남재(48) 전 전남도 정무특보, 양삼승(47)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해 치열한 경선전이 예상된다.

임 의원의 최 실장은 지난 19대 총선에 이어 또 한번 경선 리턴메치를 벌이게 된다. 임 의원은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 등을 내세우며 민심을 파고 들고 있고, 최 실장은 4년간 지역에서 꾸준히 바닥을 다진 만큼 경선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더민주 경선은 '계파간' 경쟁이 예상된다



임내현 국회의원, 김윤세 당협위원장, 노남수 시민감사관, 이남재 전 정무특보, 이형석 전 광주부시장, 최경환 공보실장

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형석 전 경제 부시장은 이해찬 전 총리와 막역한 사이로 대표적인 '친노(친 노무현)계'로 분류되고, 이남재 정무특보는 손학규 전 대표의 서강대 제자로 대표적인 '손학규계'로 분류되고 있다.

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형석 전 경제 부시장은 이해찬 전 총리와 막역한 사이로 대표적인 '친노(친 노무현)계'로 분류되고, 이남재 정무특보는 손학규 전 대표의 서강대 제자로 대표적인 '손학규계'로 분류되고 있다.

이밖에 김성환(55) 전 국무총리실 관리관도 국민의당에 합류한 상태로, 노남수(46) 광주시 시민감사관이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윤인호(45) 전 통합진보당 광주시장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이밖에 김성환(55) 전 국무총리실 관리관도 국민의당에 합류한 상태로, 노남수(46) 광주시 시민감사관이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윤인호(45) 전 통합진보당 광주시장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더민주·국민의당, 경선 경쟁 치열할 듯



임내현 국회의원, 김윤세 당협위원장, 노남수 시민감사관, 이남재 전 정무특보, 이형석 전 광주부시장, 최경환 공보실장

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형석 전 경제 부시장은 이해찬 전 총리와 막역한 사이로 대표적인 '친노(친 노무현)계'로 분류되고, 이남재 정무특보는 손학규 전 대표의 서강대 제자로 대표적인 '손학규계'로 분류되고 있다.

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형석 전 경제 부시장은 이해찬 전 총리와 막역한 사이로 대표적인 '친노(친 노무현)계'로 분류되고, 이남재 정무특보는 손학규 전 대표의 서강대 제자로 대표적인 '손학규계'로 분류되고 있다.

이밖에 김성환(55) 전 국무총리실 관리관도 국민의당에 합류한 상태로, 노남수(46) 광주시 시민감사관이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윤인호(45) 전 통합진보당 광주시장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이밖에 김성환(55) 전 국무총리실 관리관도 국민의당에 합류한 상태로, 노남수(46) 광주시 시민감사관이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윤인호(45) 전 통합진보당 광주시장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 **광주 광산구 갑**

더민주를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김동철(60) 의원의 4선 도전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윤 전 의장은 천정배 의원이 주도한 가칭 국민회의에 몸을 담았다가 국민의당과 통합하면서 김 의원과 경선 구도를 만들었다.

김 의원의 4선 성공 여부도 관심사다. 더민주에서는 임한필(44) 광산문화재단 연구소 대표, 허문수(53)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더민주 안팎에서는 광산 갑에 최근 영입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등이 거론되는 등 새로운 인물 전략공천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송병태(75) 전 광산구청장과 장원섭(49) 전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등의 출



김동철 국회의원, 김용재 당협위원장, 임한필 연구소장, 허문수 전 시의원, 장원섭 전 사무총장, 강위원 복지관장

마 여부가 관심사다. 하지만, 김 의원의 탈당에 따라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던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대거 탈당해 더민주로서는 지역위원회부터 다시 꾸려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특히 광산 갑 선거구는 광주지역 다른 선거구와 달리 도농(都農) 복합 선거구라는 점에서 3선인 김 의원의 탄탄한 조직력이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에선 김용재(68) 광산갑 당협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동철 4선 도전 더민주 전략공천 카드 만지작



김동철 국회의원, 김용재 당협위원장, 임한필 연구소장, 허문수 전 시의원, 장원섭 전 사무총장, 강위원 복지관장

마 여부가 관심사다. 하지만, 김 의원의 탈당에 따라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던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대거 탈당해 더민주로서는 지역위원회부터 다시 꾸려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특히 광산 갑 선거구는 광주지역 다른 선거구와 달리 도농(都農) 복합 선거구라는 점에서 3선인 김 의원의 탄탄한 조직력이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에선 김용재(68) 광산갑 당협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 **광주 광산구 을**

2014년 7월 재보선에 당선된 권은희(41) 의원이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에 합류했지만,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더민주에 복당하면서 전·현직 의원 간 치열한 맞대결이 예상된다. 전·현직 의원 간 대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文-安 간 대리전으로 볼 수 있어 이번 4·13 총선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권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지 1년6개월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군부대 이전사업의 물꼬를 트는 등 의정 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민주 복당과 함께 선대·비대위원을 맡은 이 전 의원은 광산을 선거구에서 재선을



권은희 국회의원, 송환기 당협위원장, 김중구 공인중개사, 이용섭 전 국회의원, 최선욱 상임고문, 문정은 위원장

한 만큼 아직까지 탄탄한 조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두 후보가 모두 당내에서 비중 있는 인물이라서 양당이 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4·13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인 김중구(48)씨가 더민주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대고, 최선욱(61) 광산미래경제포럼 상임고문이 국민의당으로, 정의당에서는 문정은(29) 광산구위원회 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송환기(63) 당협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대고, 최선욱(61) 광산미래경제포럼 상임고문이 국민의당으로, 정의당에서는 문정은(29) 광산구위원회 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송환기(63) 당협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

■ **목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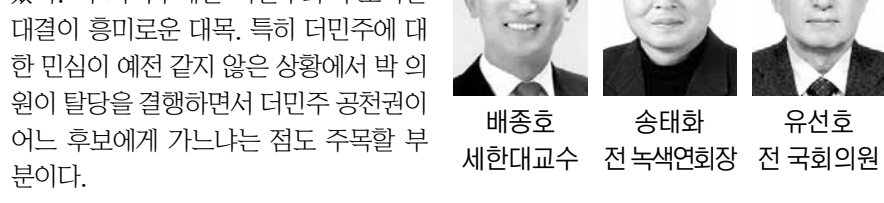
목포는 선거구 조정이 최대 변수다. 목포 선거구에선 무소속 박지원(73) 의원과 새누리당 박석만(50)·한영배(57), 더불어민주당 조상기(66), 정의당 서기호(47) 의원, 국민의당 배종호(54), 무소속 유선호(62)·김한창(43)·송태화(54)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다.

무소속으로 4선에 도전하는 박지원 의원은 금기월래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야권 통합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3선 의원을 지낸 유 전 의원은 지역구를 옮겨 지역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전 국가정보원 출신인 박석만 후보와 목포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인 한영배 후보, 전 KBS 뉴욕 특파원인 배종호 후보는 조직을 재정비한 뒤 지역 표발을 다지고



박지원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박석만 전 국정원직원, 한영배 법무사, 조상기 전 KBS이사, 김한창 전 전문위원

있다. 또 김한창·송태화 후보도 예비후보를 등록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 지역구에선 더민주와 무소속간 대결이 흥미로운 대목. 특히 더민주에 대한 민심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박 의원이 탈당을 결행하면서 더민주 공천권이 어느 후보에게 가느냐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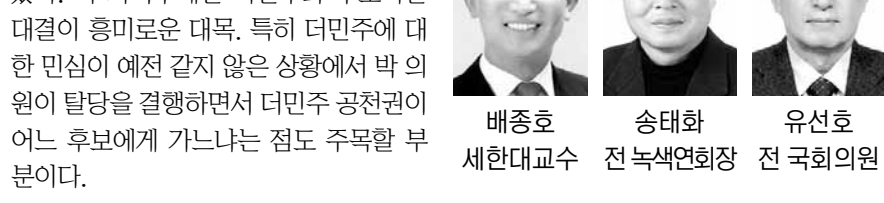
배종호 세한대학교수, 송태화 전 녹색연합회장, 유선호 전 국회의원

박지원 아성 ... 무안·신안과 합구될지 촉각



박지원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박석만 전 국정원직원, 한영배 법무사, 조상기 전 KBS이사, 김한창 전 전문위원

있다. 또 김한창·송태화 후보도 예비후보를 등록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 지역구에선 더민주와 무소속간 대결이 흥미로운 대목. 특히 더민주에 대한 민심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박 의원이 탈당을 결행하면서 더민주 공천권이 어느 후보에게 가느냐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배종호 세한대학교수, 송태화 전 녹색연합회장, 유선호 전 국회의원

※후보군 순서는 현역 의원·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순

■ **광주 선거구**



■ **전남 선거구**

